

다이라 계곡과 위패암 - 위패암, 잇쓰 폭포

다이라 계곡은 후지코토강의 맑은 물이 만들어 낸 51 헥타르의 계곡입니다. 깊이가 30m 이상인 이 계곡은 시라카미 산지의 고지대에서 눈이 녹은 물을 운반합니다. 너도밤나무와 수령 200 년의 삼나무가 산의 사면에 밀집해 늘어서 있습니다.

이 계곡은 세계자연유산 지역의 보호구 밖에 있지만, 생태는 매우 유사합니다. 숲에는 너도밤나무와 삼나무 외에도 물참나무, 칠엽수, 여러 종의 소나무 등 모두 100 여 종의 수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10 종류 이상의 식용 산채와 개다래 등의 과수도 있습니다. 개다래는 다래의 일종이며, 개다래의 잎은 여름에 하얗게 됩니다. ‘고양이 가루’라고 불리기도 하는 개다래는 개박하보다 강한 도취 효과를 고양이에게 가져다줍니다. 라즈베리의 일종인 곰딸기도 이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달콤하고 붉은 열매는 숲에 사는 반달가슴곰이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곰의 딸기(일본어로 딸기는 이치고)라는 의미에서 ‘구마이치고’라고 불립니다.

곰 외에도 일본원숭이와 일본 하늘다람쥐가 다이라 숲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큰유리새와 뿔호반새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날아다닙니다. 축축한 숲 바닥에는 많은 버섯류가 자라며, 노란색의 가녀린 손가락 모양을 한 창싸리버섯 등도 볼 수 있습니다. 물참나무 줄기에는 식용 잎새버섯이 많은 주름을 만들어 내며 자라납니다.

다이라 계곡 주변 산들에서는 1958 년까지 아연, 납, 구리, 주석의 채굴이 이루어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도 선로와 과거 채련시설의 벽돌 굴뚝을 볼 수 있습니다. 계곡에는 20 세기 중반까지 사람이 살았고, 이 지역의 어린 삼나무 대부분은 그 무렵에 심어진 것입니다.

계곡을 보려면 계곡에 걸쳐 있는 높이 30m 의 다이라 다리 근처에 주차하고 다리에서 절경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가는 하이킹 코스는 다케다이 자연관찰 교육림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는 다이라 다리를 지나 약 3km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왕복 1km 미만의 이 하이킹 코스는 후지코토강 강변의 외딴곳으로 이어지며, 거대한 바위가 있기 때문에 피크닉과 수영을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강은 깊은 곳에서는 아름다운 푸른빛을 띠고 맑은 물이 바위 위를 흐릅니다. 대부분의 바위는 녹색 응회암으로 아름다운 청록색을 띤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 바로 상류에 있는 위패암이라 불리는 커다란 석판은 불교의 위패를 닮았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과거 하이킹 코스는 위패암 너머까지 이어져 있었지만, 2013 년 일어난 산사태로 인해 길 마지막 지점의 0.5km 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이킹 코스는 과거 벌목 도로 루트를 따라가며, 장소에 따라서는 미끄러지기 쉽고 가파른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걷기가 조금 어려운 곳도 있으므로 걸을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